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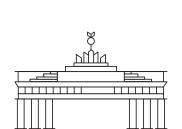


2022 CSR REPORT

OF GERMAN COMPANIES IN KOREA











2022 CSR REPORT OF GERMAN COMPANIES IN KOREA

KGCCI CSR Report Eighth Edition, November 2022

©KGCCI DEinternational Ltd. 2022

8th Fl., Shinwon Plaza, 85, Dokseodang-ro, Yongsan-gu, Seoul 04419 T +82 2 37804 600 F +82 2 37804 637 www.kgcci.com

A portion of the proceeds from this brochure will be donated to a charity project in Korea.

CONTENTS

| 4 | BASF |
|----|--|
| 6 | Bayer |
| 8 | Merck Korea |
| 10 | Siemens |
| 12 | TÜV SÜD Korea |
| 14 | Volkswagen Group Korea |
| 16 | Armacell Korea |
| 17 | BMW Group Korea |
| 18 | Porsche Korea |
| 20 | KGCCI & KGCCI DEinternational |

20



Dear Readers,

The close and trusting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Germany is the basis for jointly tackling the major challenges we face internationally. Our countries share an interest in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we are linked by common values. However, neither politics, business nor civil society are in a position to solve glob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poverty reduction or human rights protection on their own. Society needs to act as a whole.

In order to implement social and ecological standards political efforts and responsible business practices need to go hand in hand. In addressing today's challeng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plays a crucial role. It relates to a variety of aspects such as ensuring the welfare of employees, using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ies, developing resource-efficient procedures and offer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future generations.

One of the many reasons why companies take CSR very seriously is that it is in their own interest. Responsible businesses enact the same values and principles wherever they have a presence, and know that good practices in one area do not offset harm in another. CSR benefits a company's business in a sustainable, long-term manner.

On behalf of the German Embassy allow me to congratulate the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n its 8th edition of the CSR-report. The report once again showcases impressive examples of how companies can "make a difference" and set the stage for long-term success in the interest of our society, our planet and our livelihood.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한국과 독일의 긴밀한 신뢰 관계는 양국이 국제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주요 도전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양국은 규범에 입각한국제 질서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으며,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비즈니스, 시민사회 모두 기후변화나 빈곤퇴치, 인권보호 등과 같은 글로벌 과제를 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는 하나로 뭉쳐 행동해야 합니다.

사회적, 생태적 기준을 이행하려면 정치적 노력과 책임 있는 비즈 니스 관행이 모두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결정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CSR은 직원 복지, 친환경 기술 사용, 자원 효율적 프로세스 개발, 미래 세 대 교육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측면을 내포합니다.

기업들이 CSR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CSR이 그들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책임 있는 기업은 진출해있는 모든 곳에서 동일한 가치와 원칙을 제정하고, 한 분야의 모범 사례가 다른 분야의 피해를 상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CSR은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방식으로 기업의 비즈니스에 이익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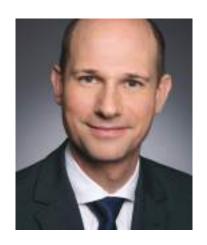
독일대사관을 대표하여 한독상공회의소의 제8차 CSR 보고서 발간을 축하 드립니다. 이 보고서는 기업들이 우리 사회와 지구,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 어떻게 "변화를 만들고" 장기적인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상적인 사례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Peter Winkler

Chargé d'Affaires a.i.

페터 빙클러

대사대리



Dear Readers,

Despite global disruptions resulting from high commodity prices, stressed supply chains, inflationary pressure and the Russian war against Ukraine, companies have continued to be strongly committed to thei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Their engagement positively impacts all sides of society, especially in the fields of sustainability and education.

CSR integrates social responsibility into a company's core business. While social responsibility can be implemen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industry, region, or size, it always creates added value. Especially, German companies have voluntarily been engaging in CSR activities for a long time and take them very seriously. They have a long history of implementing meaningful CSR projects and are usually prominent players in their local communities. Subsidiaries of German companies abroad take this experience and tradition along to the countries where they do business. We can see that their determination and commitment remain firm even during these uncertain times. With the perception that Korea is more than just a market, German companies strive for ways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Korean society in the long run and to strengthen mutual trust and understanding.

This is the eighth edition of the "KGCCI CSR Report of German Companies in Korea". It features examples of how German companies in Korea engage in the field of CSR. The report depicts that they are influential and active contributors to society and life in Korea. The mentioned companies are a few of the many examples that exist in the German-Korean business community today. We hope that these examples will inspire many companies which are working on their CSR activities and that it will initiate many new projects and programs.

Martin Henkelmann

President & CEO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전 세계가 지속적인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불안,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CSR)에 그 어느 때보다 전념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가능성과 교육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CSR은 기업의 핵심 사업에 사회적 책임을 통합합니다. 산업이나 지역, 규모에 따라 다르게 구현될 수 있지만 항상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특히 독일 기업들은 오랫동안 자발적으로 CSR 활동을 해왔으며 CSR의 중요성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대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외 주재 독일 기업의 자회사들 또한 이 전통을 바탕으로 각 나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공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독일 기업들은 그들의 전통, 결단력, 그리고 헌신이 굳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한국이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국과 상호 신뢰 및 이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KGCCI CSR Report of German Companies in Korea"의 여 덟 번째 발간입니다. 해당 리포트는 한국 주재 독일 기업들이 CSR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CSR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포트에 소개된 기업사례들은 오늘날 한국-독일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수많은 케이스 중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CSR 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더욱 발전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마틴 행켈만

한독상공회의소 대표

■ BASF We create chemistry

BASF

At BASF, we create chemistry for a sustainable future. We combine economic success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Around 111,000 employees in the BASF Group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our customers in nearly all sectors and almost every country in the world.

BASF has been a committed partner to Korea since 1954. As a leading foreign investor in the chemical industry in Korea, BASF operates eight world-scale production sites in the country. The company also maintains the regional headquarters of its Electronic Materials business and the Electronic Materials R&D Center Asia Pacific in Suwon. In addition, one R&D center for advanced material solutions and three technical development centers are located across Korea. The sales and administration offices are located in Seoul.

바스프는 화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경제적 성공뿐 아니라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스프 그룹에 근무하는 전 세계 약 11만1천명의 임직원은 거의 모든 산업분야 및 국가에서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스프는 1954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선도적 외국 기업으로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한국 내 바스프는 국내 8개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원에는 바스프 아태지역 전자소재 사업본부와 아태지역 전자소재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개의 첨단 소재 솔루션 R&D 센터와 3개의 기술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영업 및 관리 총괄 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865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54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 수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Chemicals



Website 홈페이지 www.basf.com

BASF'S CSR STRATEGY

BASF's social engagement contributes to solving current and future social challenges. In doing so, we combine impact-oriented social activities with long-term corporate success. With our social engagement strategy, we want to open up learning opportunities. Together with our partners, we align our social engagement in an impact-oriented way. We support the achievement of these goals with donations and our own not-for-profit activities (Corporate Citizenship) as well as with business-oriented projects (Starting Ventures).

바스프는 사회 참여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사회가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장기적인 기업의 성공과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사회에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기부 및 비영리 활동과 비즈니스 관련 프로젝트 등을 실천합니다. '기업시민의식'과 '벤처사업 지원' 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비영리프로젝트를 통해, 바스프의 사업장이 위치한 전세계의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바스프는 개발도상국과 신흥 국가의 저소득층 소비자와 밸류체인 파트너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BASF Kids' Lab

Since 2003

BASF's social engagement activities in Korea are designed to contribute to "Quality Education", one of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BASF Kids' Lab was launched in Germany in 1997, and for about 20 years, BASF Korea has been organizing chemistry experiment classes for Korean children to foster their interest in chemistry through safe and interesting experiments. In the future, there will be many problems such as lack of food and electricity, public transportation and residential space. BASF believes that "chemistry"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solving these problems.

So far, over 10,000 children have experienced hands-on experiments at various BASF Kids' Lab activities in Korea. BASF released an online science program called Virtual Kids' Lab to continue our efforts to support non-face-to-face science education over the past two years due to COVID-19. This year, BASF Kids Lab was held offline at 2022 Daejeon Science Festival, which was held for 4 days from October 20 to 23 as COVID-19 regulations eased. About 630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BASF Kids' Lab event and enjoyed conducting fun chemistry experiments with various materials that are easily found in daily life, raising awareness and interest in chemistry.

바스프의 사회참여 활동은 UN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SDG)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한국에서는 SDG4 '교육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바스프 키즈랩은 1997년 독일에서 시작된 이래 한국에서도 약 20년째 화학 실험교실을 진행해 왔습니다. 바스프는 먹거리와 전기 등의 에너지 부족과 대중교통 및 주거 공간의 부족 등 미래의 많은 문제 해결에 '화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키즈랩이라는 쉽고 재미있는 실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화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화학을 통해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만 10,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바스프 키즈랩에 참여했으며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재미있게 화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실험 진행이 어려워 온라인으로도 키즈랩을 체험할 수 있는 '바스프 온라인 키즈랩(Virtual Kids' Lab)'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비대면 과학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화학 실험과 멀어졌던 어린이들이 직접 화학 실험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10월 20일부터 4일 간 진행된 2022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친환경 화학교실로 운영된 이번 키즈랩은 약 63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생활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소재로 재미있는 화학 실험을 체험하고 화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흥미도를 높였습니다.





Students conduct chemistry experiments at BASF Kids' Lab on-site event, 2022 Daejeon Science Festival 2022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에서 바스프의 어린이 화학 실험 교실인 바스프 키즈랩(BASF Kids' Lab)을 체험중인 어린이들

Connected to Society Since 2017

BASF Ulsan site provides scholarships to students in Ulsan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local talent and the community. The scholarship donation started in 2017 when ten university students were awarded 10 million won with scholarship certificates. The first scholarship was raised through corporate funds and Industrial Peace Award which BASF Ulsan site manager was awarded at 2017 Ulsan Industrial Culture Festival. Since then, BASF Ulsan site has sponsored scholarships worth 10 million won for ten talented students in Ulsan

한국바스프는 지역 인재 양성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공장 인근 대학 3곳 내 바스프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학과들의 학점 우수자를 추천받아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바스프 울산공장의 장학금 기부는 지난 2017년 울산산업문화축제에서 산업평화상으로 수상한 상금과 기업자금을 더해 총 1,000만원의 취업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대학생 10명에게 수여한 것을 계기로, 이후로는 울산 지역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해 10명의 학생들을 위해 기업자금 1,00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Ulsan city Successful Investment Company Conference scholarship ceremony 울산시 성공투자기업 컨퍼런스 장학금 전달식

In 2022

BASF Korea and local communities have built strong relationships over the long term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address social needs. BASF's sites in cities such as Seoul, Ulsan, Yeosu, Gunsan, Ansan and Yesan cooperate with and contribute to local communities in Korea through employee volunteering such as making Kimchi and caring for kids with disabilities and other activities like donations to those in need. BASF Korea donated a total of 1 million won contributed by employees at Seoul office renovation opening ceremony and company donations to support meal boxes of vulnerable social group in Jung-gu district of Seoul, where Seoul office is located.

BASF Korea continue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communities by giving back to our society.

바스프는 지역사회 내도움이 필요한 기관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 울산, 여수, 군산, 안산, 예산 등 바스프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 다양한 복지단체를 대상으로 김장 담그기 봉사, 산책 봉사 등의 봉사활동 및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한국바스프 서울사무소 리노베이션 오프닝 행사에서 모인 임직원들의 기부금과 회사 기부금을 합해 총 100 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습니다. 해당 기부금은 서울사무소가 위치한 서울 중구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지원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바스프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ASF Korea donated meal boxes to Korea Red Cross to support vulnerable social group in Jung-gu district of Seoul 중구지역 사랑의 밑반찬 나눔 기부금 전달식



Bayer

Bayer is a life science company with more than 150 years of history and has core competencies in healthcare and nutrition. Under the new vision 'Health for all, hunger for none', Bayer is striving to address the challenges status quo, such as disease treatment, improvement of daily healthcare and food security in preparation for the growing global population, in order to meet the fundamental human needs of health and nutrition. In 1955, Bayer Korea started its business and currently has around 400 employees. Bayer is committed to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responsible corporate citizen.

바이엘은 1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생명과학 기업으로, 제약과 농업 분야에서 핵심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Health for all, Hunger for none' 이라는 새로운 비전 하에 건강과 영양이라는 인류의 근본적 니즈를 충족하고자 질병 치료와 일상 건강 수준 증진 및 식량 안보 등 인류가 직면하는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55년 한국 시장에서 첫 발을 내딛어 현재 4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이엘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863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55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 수 400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Life Science



Website 홈페이지 www.bayer.co.ki

BAYER KOREA'S SOCIAL ENGAGEMENT

Bayer's corporate mission, 'Science for a Better Life', a new vision, 'Health for all, Hunger for none' offers solutions to social challenges we face. In late 2020, Bayer launched the CSE brand 'Glück' for long-term and strategic CSE. Bayer's CSE stands for Corporate Social Engagement, which is Bayer's ultimate way of participating in society leading to social empathy and participation. The concept of CSE is beyond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hich is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a company as a member of the local community, and CSV (Creating Shared Value) which creates public interests and values led by corporate identity, vision, and technology. Newly launched, Glück, German word for happiness and luck, shows Bayer's willingness to do its best to ensure that all members of our society are healthy and happy through sustainable and systematic Bayer's social engagement activities. The followings are the variety of Bayer's activities under 'Glück'.

바이엘 코리아의 CSE 활동

바이엘의 기업 미션인 '더 나은 삶을 위한 과학'과 새로운 비전 'Health for all, Hunger for none' 실현을 위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이엘은 2020년 말,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기업의 사회참여를 위해 CSE 브랜드 '글뤽(Glück)'을 런칭했습니다. 바이엘의 CSE는 Corporate Social Engagement의 약자로, 기업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역할과 책임 의식에 따른 활동을 의미하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기업의 아이덴티티, 비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창출하는 쌍방향 활동인 '공유가치창출(CSV)'의 개념을 넘어 사회적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바이엘만의 궁극적인 사회참여방식을 의미합니다. 바이엘의 CSE 브랜드 '글뤽(Glück)'은 행복과 행운을 의미하는 독일어로, 바이엘 코리아가 기업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이엘 코리아는 '글뤽(Glück)'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Coloring Kit Donations for Hospitalized Pediatric Patients 입원 환아 대상 컬러링 키트 기부

After launching the Corporate Social Engagement brand 'Glück' at the end of 2020, Bayer has been practicing continuous and systematic CSE through a partnership with ChildFund Korea. One of them is the donations for hospitalized pediatric patients. In December 2021, Bayer donated 500 coloring kits to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Hangang Sacred Heart Hospital,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Samsung Medical Center, and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Bayer's coloring kit, 'A happy fairy tale starting at your fingertips', is designed to develop fine muscles, give visual stimulation

and improve creativity for children. Also, the kit is expected to help relieve stress on hospitalized pediatric patients with cancer or chronic disease.

바이엘은 2020년 말 기업의 사회참여 활동(Corporate Social Engagement) 브랜드 '글뤽(Glück)'을 런칭한 이후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참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컬러링 키트 기부로, 2021년 12월에는 강남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삼성서울병원,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아들에게 500개의 컬러링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바이엘의 컬러링 키트 '손끝에서 펼쳐지는 행복한 동화세상'은 입원 환아들의 소근육 발달과 시각적 자극, 창의력 향상 등 또래 발달에 맞는 성장에 도움을 주며 장기간 병원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치료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And the first forms of the first

Sponsorship for 'Art Therapy Program for Children in Care Blind Spot'

돌봄사각지대 아동 미술치료 프로그램 후원

Another CSE carried out through 'Glück' is 'Sponsorship for Art Therapy Program for Children in Care Blind Spot'. Bayer donated 20,000 Euros to the ChildFund Korea's visiting psychological treatment support project this year as well as last year. The donation will be sent to Yeongdeungpo Social Welfare Center

and will be used for 480 children in need to receive 20 professional psychotherapy sessions per year. Specifically, it is expected to help treat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xiety, and difficulties in adapting for children who need help in their psychological, emotion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but have financial difficulties.

글뤽(Glück)을 통해 진행되는 또 다른 활동으로 돌봄 사각지대 아동 대상 미술치료 프로그램 후원이 있습니다. 바이엘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초록 우산어린이재단의 찾아가는 심리치료 지원 사업에 2만 유로의 기금을 전달하였으며, 후원금은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되어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480명(연인원 기준)의 아동들이 일 년간 20회의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심리ㆍ정서ㆍ행동 발달에 도움이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아동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불안, 적응의 어려움등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imchi Charity for Grandparents' families

조손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The 'Kimchi making event with Love' is Bayer's representative CSE that has been going on for over 10 years. Since 2021, as one of Glück's programs mentioned above, Bayer has been donating Kimchi to grandparent families through a partnership with ChildFund Korea. Bayer's employees made kimchi by themselves for almost 10 years for this event, but in 2020, and 2021,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kimchi-making event was replaced by donating 10,000 Euros to ChildFund Korea. ChildFund Korea delivered 10 kg of kimchi each to 250 grandparent families and shared the warmth with the underprivileged in our society.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10년 넘게 지속되어오는 바이엘의 대표 사회참여 활동입니다. 2021년부터는 앞서 언급된 글뤽(Glück)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초록우산어린이

재단과 함께 조손 가정을 대상으로 김장 나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임직원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전달해왔으나 2020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김장을 직접 하는 대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1만유로의 기부금을 기탁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조손가정 250여 가구에 각각 10kg의 김장김치를 전달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에 온기를 전하였습니다.

Donation for Female Adolescents Suffering from Menstrual Disorders 여성 청소년 월경관련질환 진료 및 교육비 후원

Bayer held a donation campaign 'Flowery road for you without menstrual disorders' to support a healthier life for women in conjunction with '#BreakTheBias', the theme of International Women's Day 2022. Bayer has been sponsoring Seoul Metropolitan Female Youth Health Center since 2020 to eliminate prejudice against menstruation and contraception among female adolescents and to raise awareness of healthy menstruation. So far this year, a total of 1,727 medical staff have participated and 23 million won were donated to the center, which has been used for educating, diagnosing, and treating menstrual-related diseases for female adolescents.



바이엘은 2022 세계 여성의 날의 주제인 '여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세요(#BreakTheBias)' 와 연계해 여성의 더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기부 캠페인 '월경관련 질환 없는 건강한 꽃길만 걸어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바이엘은 여성 청소년들의 월경과 피임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건강한 월경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서울시립10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나는봄'은 10대 여성 서울시 산하 단체로, 올해까지 총 1,727명의 의료진의 동참으로 2,300만원 규모의 기부금이 전달되었고, 이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월경 관련 질환에 대한 교육,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Seoul Flying Disc Competition with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서울시 발달장애인 어울림 플라잉 디스크 대회

Bayer participated in the 'Seoul Flying Disc Competition with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volunteer activity in 2022. The purpose of the competition is to provide sports activities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o provide a place for harmony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About 230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articipated in this competition, which was resumed after 3 years since the COVID-19 pandemic. From Bayer Korea, about 30 employees participated for the fourth time this year, providing booth operation, game assistance, and one-on-one support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nd enjoyed sports activities together.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break prejudice and improve awarenes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hile communicating and having fun with them. Bayer plans to continue participating in volunteer activities to fulfill diversity and inclusion, which are Bayer's core values.

바이엘은 2022년 '서울시 발달장애인 어울림 플라잉디스크 대회'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대회의 목적은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스포츠 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대회에는 서울 지역 단체 발달 장애인 230여 명이 참여했으며, 바이엘 코리아 임직원 30여 명은 올해로 4회째 참석해 부스 운영, 경기 보조, 발달장애인 1:1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들과 문화 체육 활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소통하고 즐기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였으며, 바이엘의 중요 가치인 포용과 다양성을 실천하기 위해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Merck

Merck Korea

Merck Korea was established in 1989.
Electronics business offers advanced materials for the electronics industry and manufactures functional materials and effect pigments.
Healthcare business provides medicines and devices on cancer, multiple sclerosis, growth disorders and infertility. Life science business has wide portfolio for research, water purification and biomonitoring and provides equipment for research and bioprocessing.

1989년 설립된 한국 머크의 일렉트로닉스 사업은 전자 산업을 위한 다양한 첨단 재료와 함께 기능성 원료 및 이펙트 안료를 제조하며, 헬스케어 사업은 암, 다발성경화증 및 난임 등의 질환을 위한 의약품 및 디바이스를 제공한다. 생명과학 사업은 연구, 정제수 및 미생물 검사를 위한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오 제조 공정을 위한 장비를 제공한다.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668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89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 수 About 1,700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Electronics, Healthcare, Life Science



Website 홈페이지 www.merck.co.kr

WE TAKE ON RESPONSIBILITY.

This is something we've been doing for 354 years. We will be more responsible for looking, listening, and doing better. Listening is especially important to us because we want to know what matters to our employees, customers, investors, and other stakeholders. There is no better way to protect their interests, meet their needs – and secure our company's long-term success. In fact, we've made this aspiration an integral pillar of our corporate strategy. Our corporate responsibility strategy builds on this approach, leading us to practice responsible governance each and every day. In our CR efforts, we focus our resources on those areas where we can make the biggest difference, which is why we pursue three strategic spheres of activity: health, environment, and education & culture. In doing so, we constantly seek to secure the future of society while honing our competitive edge.

머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354년 동안 유지된 머크의 신념입니다.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에 더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특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크는 직원, 고객, 투자자,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자 노력합니다. 이해 하게 하고, 요구를 충족시키며,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머크는 이러한 포부를 기업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머크의 기업책임(Sustainability) 전략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루하루 책임있는 거버넌스를 실천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머크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분야인 건강, 환경, 교육 및 문화 3 가지 전략 분야에 전념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밝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추구합니다.

Corporate Leading Activities 회사 주도 활동



1 R&D Support 연구 지원

Merck Award (2004~): "Merck Award" was established for technology papers in 2004 during the IMID (International Meeting on Information Display) organized by Korean Information Display Society. The year 2004 marked the 100th anniversary of Merck's liquid crystal research and the award was designed to recognize outstanding scientific contributions to display technologies. Since 1904, Merck had started R&D of liquid crystals after the worldwide first discovery of liquid crystal phenomenon in 1888 and has celebrated and led the display industry over 100 years with continuous efforts and contributions. In 2006, the scope of Merck Award enlarged from liquid crystal display technology to all display technology along with young scientists by establishing "Merck Young Scientist Award." In 2013, when the 125th anniversary of liquid crystal discovery was celebrated, Merck Korea and Korean Information Display Society decid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eligibility criteria from published papers to research activities from

the 10th Merck Award, another milestone in effort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Korea's display industry.

머크 어워드 (2004~): 2004년에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가 주관하는 IMID에서 제정된 기술 논문상으로, 머크 그룹이 1888년 세계 최초로 액정 물질을 발견한 이후, 1904년부터 액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100년이 넘도록 액정 연구 개발 및 생산을 주도하며 디스플레이 기술 부문의 뛰어난 과학적 업적을 지원하기 위해 머크의 액정 연구 100주년이 되는 2004년에 제정되었다. 2006년에는 머크 젊은 과학자상으로 확대되었고 액정발견 125주년이었던 2013년 제10회 머크 어워드부터 한국 머크와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는 시상 내역 및 포상을 논문상에서 학술상으로 변경하여, 한국 디스플레이산업발전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Merck 350 Future Researcher Award (2018~):

Merck 350 Future Researcher Award was coestablished by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and Merck Korea to celebrate the 350th anniversary of Merck in 2018, and the winners receive an award plaque, cash prize and a memento. 10th Merck Award, another milestone in effort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Korea's display industry.

머크 350 미래연구자상 (2018~): '머크 350 미래연구자상'은 2018년 머크 창립 3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와 한국 머크가 공동으로 제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머크에서 기증한 상금 및 기념품이 전달된다.

Korean Cancer Association-Merck Scientific

Award (2011~): The award is to encourage academic research activities in colorectal cancer and head and neck cancer and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oncology medical science in Korea under partnership with the

Korean Cancer Association and established in 2011.

대한암학회 머크 학술상 (2011~): 대한암학회와 함께 국내 대장암 및 두경부암 분야 연구 및 학술 지원을 위해 2011년 제정한 학술상이다.

Korean Association for Clinical Oncology-Merck Scientific Award (2012~): The award is to encourage clinical research in colorectal cancer and contribute to onc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s in Korea under partnership with the Korean Association for Clinical Oncology and established in 2012.

한국임상암학회 머크 학술상 (2012~): 한국임상암 학회와 함께 국내 대장암 임상연구 분야 연구 및 학술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제정한 학술상이다.

Kore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Merck Scientific Award (2013~): The award is to contribute to recognize scientific achievement and encourage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fertility research field under partnership with Kore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and established in 2013.

대한생식의학회 머크 학술상 (2013~): 대한생식의학회 와 함께 생식의학 분야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2013년 제정한 학술상이다.

2 Support for Young Talents 젊은 인재들을 위한 지원



Merck Young Supporters (2019~): For the first in-take in life science industry, Merck's Research & Applied Solutions of Life Science business launched the 'Merck Young Supporters' campaign in Korea in July. Through this campaign, students will have opportunities to suggest their ideas on how to promote Merck brand in life science industry as ambassadors for Merck and pursue curiosity as the core value of Merck, which has led the scientific development over 350 years. Additionally, they will also learn and try their hands on developing a marketing plan to empower the scientific community. Merck Young Supporters experience the innovation of Merck's brand and life science business, and Merck tries to shine bright ideas of supporters, such as a mentor to participate in the practitioner.

머크 영 서포터즈 (2019~): 머크의 생명과학 사업리서치 & 어플라이드 솔루션 사업부문은 2019년 6월 '머크 영 서포터즈'를 국내 생명과학 업계에서 처음으로 런칭했다. 머크 영 서포터즈는 대학생들이 머크의 홍보대사로서 생명과학 업계에 머크 브랜드를 홍보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다. 이를 통해 머크의핵심 가치이자 지난 350여년 동안 머크의 과학 발전을견인해 온 호기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선발된 학생들은 과학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주는 마케팅계획을 세워서 직접 실행도 해본다. 머크 영 서포터즈는머크의 브랜드와 생명과학 사업의 혁신을 이해하는기회로서 머크의 직원들은 프로그램의 멘토로 참여해서포터즈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킬 수있도록 지원한다.

③ Support for diverse society 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Support for Children and youth: Children and youth support via 'Right Growth Campaign' to increase awareness of right growth. Mentoring for university students since 2016 and 2019 Job fair company presentation. Donated masks, books purchase expenses, and messages of encouragement for underprivileged children to the local charity ChildFund Korea via Nurimaru campaign.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머크는 아동 청소년의 바른 성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바른성장 캠페인'을 공동 후원 하였으며, 2016년부터 대학생을 위한 멘토링 진행 및 2019 잡페어 기업발표에 참여하였다. 또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누리마루 캠페인'을 통해 마스크와 도서를 기부하였으며, 2011년부터 어린이재단 저소득 가정의 저신장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호르몬 치료를 지원하였다.

Support for Patience: Released 'Supporting Women with Cancer' report, presenting findings from a global survey of 4,585 women across 23 countries, and implemented fundraising as matching grant with doctors via cancer campaign. Fully donated to Korea Blood Disease & Cancer Association for the cancer patients & family carers to support treatment cost and cancer education programs.

환자 지원: 세계 23개국 4,585명 여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여성 암환자지원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대장암 전문의들이참여한 캠페인을 통해 매칭그랜트 방식으로암환자 기금 출연하였다. 이렇게 모인 금액 전액은암환자 치료비 지원 및 환자와 가족을 위한 암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한국혈액암협회에기부되었다.

■ Employee Leading Volunteer Activities for Local Community 지역 사회를 위한 직원 주도 봉사 활동

Volunteer Club 'Onnuriae' (2012~): Merck employees of Anseong-shi, Gyeonggi-do, organized volunteer club 'Onnuriae' in January

2012 and it was registered in Anseongshi. During 5 years before established, one employee donated briquettes, rice, clothes to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living alone with supporting from company and acquaintance. Onnuriae club was organized to expand to employee leading activity and has supported the underprivileged and the elderly living alone in Anseong-shi.

온누리에(愛) 클럽 (2012~): 경기도 안성의 한국 머크 직원들은 2012년 1월 자발적으로 온누리애(愛) 클럽을 조직하여 안성시에 등록, 활동해오고 있다. 직원 개인이 회사와 지인으로부터 지원받아 연탄, 쌀, 의류 등을 장애우와 독거노인에게 약 5년간 지원해오던 활동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확대해 안성시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지원해오고 있다.

Loving Neighbors (2020~): Ansan site is supporting underprivileged children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in Ansan-si through Ansan Multi-cultural Children Care Center, nonprofit organization. And also, through Sharing happiness project, delivered necessaries and stationery to local resident and local childcare center. And also, in cooperation with Gyeonggi-do blood bank, donated blood to help broader range of community where site belongs.

안산 사이트는 비영리사회복지기관인 이웃사랑안산 다문화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안산시 내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디지털 교육뿐만 아니라 실내스포츠 공간 마련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비롯 해 지역 내 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 학용품, 식품 등을 전달하는 작은 단위의 봉사부터 머크 사이트가 속한 경기도 지역 사회를 위해 헌혈, 연탄 배달 봉사, 농수로 및 하천 환경 정비 등 지역 사회를 위한 폭넓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IEMENS

Siemens

Siemens, headquartered in Berlin and Munich, is a technology company focused on industry,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healthcare, that has stood for engineering excellence, quality, innovation, reliability, and internationality for 175 years. From more resource-efficient factories, resilient supply chains, and smarter buildings and grids, to cleaner and more comfortable transportation as well as advanced healthcare, Siemens creates technology with purpose adding real value for customers. By combining the real and the digital worlds, Siemens empowers its customers to transform their industries and markets, helping them to transform the everyday for billions of people. Since its foundation in the 1950s, Siemens Korea (Siemens Ltd. Seoul) has taken the initiative in providing various business cooperation efforts. active investments and development based on its technology and global experience in order to create positive ties with Korean industries.

독일 베를린과 뮌헨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전기전자 기업 지멘스는 산업, 인프라, 운송,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지난 175년 동안 뛰어난 엔지니어링 역량과 품질, 혁신, 신뢰성, 글로벌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공장의 자원 효율성 개선, 탄력적인 공급망 관리, 스마트 빌딩 및 그리드는 물론, 보다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운송 서비스와 첨단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지멘스의 기술은 고객을 위한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지멘스는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결합함으로써 고객이 산업과 시장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수십억 인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50년대 국내에 진출한 한국지멘스는 선진기술과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 협력과 적극적인 투자, 개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847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71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 수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Manufacturing



홈페이지 www.siemens.co.kr

CSR ACTIVITIES IN KOREA

Transforming the everyday to create a better tomorrow

Serving society while doing successful and sustainable business is at the heart of Siemens' strategy. We are taking our ESG commitment to the next level with our 'DEGREE' framework. Each letter of DEGREE represents an area where Siemens strives to achieve clear targets: Decarbonization, Ethics, Governance, Resource Efficiency, Equity and Employability. As a responsible corporate citizen, Siemens applies high management standards and strategically focuses on areas such as education, science, society, environment, where company competencies, resources and employee volunteering can make a meaningful difference.

지속가능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동시에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지멘스 전략의 핵심이다. 지멘스는 'DEGREE' 프레임워크를 통해 ESG 경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DEGREE의 각 글자는 지멘스가 목표 달성을 위해 주력하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 기업 윤리(Ethics), 경영관리(Governance), 자원효율성(Resource Efficiency), 공평성(Equity), 역량 개발(Employability) 분야를 나타낸다. 지멘스는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높은 경영 표준을 적용하고, 교육 및 과학, 사회, 환경 등 회사 역량과 리소스, 임직원 자원봉사 등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기업 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First EV operation at Siemens Korea

In November 2021, Siemens Korea celebrated the delivery of the 1st company Electric Vehicle (EV). Siemens Korea plans to continue promoting the use of EVs and ultimately reduce carbon emissions by replacing corporate vehicles with ecofriendly EVs which go in line with the headquarters' 2030 carbon neutral goal. In addition,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global Green Fleet program designed to overcome environmental challenges, Siemens Korea will expand the operation of EVs to other local offices in the future.



한국지멘스는 지난해 11월 첫 업무용 전기차를 도입하여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국지멘스는 지멘스그룹의 2030 탄소 중립 목표에 발맞춰 법인 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함으로써, 전기차 활용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지멘스그룹의 Green Fleet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여 앞으로 국내 사업장에 전기차 도입과 활용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Delivery of Daily Necessities by 'The NANUM'

In March 2022, Siemens Korea conducted 'Delivery of Daily Necessities' at Seodaemun Social Welfare Center to help needy neighborhoods facing economic hardship due to COVID-19. With the donation of KRW 10 million, an aid kit consisting of ready-to-cook food and personal sanitation products was delivered to about 200 households. The NANUM, an in-house employee volunteering group, has conducted the 'Delivery of Daily Necessities' program with Seodaemun Welfare Center since 2017. Due to COVID-19 pandemic, The NANUM shifted its voluntary work to non-contact interactions to protect employees and local communities.

지난 3월 한국지멘스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의 물품 배달' 활동을 진행했으며, 총지원금 1,000만원과 함께 간편 식품과 개인 위생용품으로 구성된 지원 키트가 지역 돌봄이웃 200여 가구에 전달되었다. '서대문구 사랑의 물품 배달'은 임직원 자원 봉사단인 '더 나눔 봉사단'이 2017년부터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전개해온 활동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봉사가 어려워진 이후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활동을 전환해 나눔을 실천했다.



Wildfire Emergency Relief

In March 2022, Siemens Korea donated KRW 20 million to Korean Red Cross for supporting wildfire recovery efforts in the eastern coastal areas. The donation was used for a variety of relief activities such as operating shelters, providing emergency relief supplies to support wildfire victims in the eastern coastal areas including Uljin, Samcheok and Gangneung, with hopes that with the support, residents affected by the wildfire would be able to restore their lives as soon as possible.

지난 3월 한국지멘스는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해당 구호 성금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등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의 이재민을 위한 생계 지원과 대피소 운영 및 긴급 구호 세트 마련 등에 사용되었으며, 한국지멘스는 이번 참사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희망했다.



■ Fundraising for Supporting Victims in Ukraine

Siemens Korea conducted an employee fundraising program to support the affected victims from the Ukraine war. The total donation from employees in Korea amounted around KRW 12 million which was delivered to the Red Cross through 'Siemens Caring Hands', Siemens Group's global charitable organization. The donations from Siemens employees worldwide which have been matched by the company amounts to EUR 11 million. The funding has been used for relief activities such as providing clothing and temporary refugee accommodations for Siemens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and for all Ukrainian people in need.

한국지멘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임직원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지멘스 총 모금액 약 1,200만원의 기부금은 지멘스그룹의 글로벌 자선 프로그램인 '지멘스 케어링 핸즈'를 통해 적십자사로 전달되었다. 전 세계 지멘스 임직원들의 기부금은 회사로부터 매칭되어 총 1,100만 유로의 모금액이 형성되었다. 이는 지멘스 직원과 가족을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모든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의복 및 임시 숙소 마련 등의 구호 활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 Impact Forum

Last September, Siemens Korea attended to the '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 Impact Forum' where the results of BIS, collective action project for fighting corruption to establish a fair business environment were presented. BIS is the 3rd global funding round project sponsored by the Siemens Integrity Initiative (SII) and operated by UNGC Network Korea and KoSIF for three years from October 2019 to September 2022. During the forum, experts from businesses,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ooked back on the past achievements of BIS and discussed the future direction of corporate anti-corruption. The forum ended with the 'Ring the Integrity Bell' event with hopes that the voice of integrity would resonate widely in our society reminding the meaning of collective actions.

지난 9월 한국지멘스는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반부패 공동 노력 프로젝트인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의 최종 성과 발표를 위한 'BIS 임팩트 포럼'에 참석했다. BIS는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의 후원으로 진행된 3번째 글로벌 펀딩 라운드 프로젝트로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3년간 진행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기업과 정부, 국제기구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BIS의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기업 반부패가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리 사회에 청렴의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기를 기원하는 '청렴 벨타종식'과 함께 마무리하며 공동 노력의 의미를 되새겼다.



■ ESG Campaign for a Sustainable Future

On October 2022, Siemens Korea celebrated its 55th anniversary at the headquarters and conducted an 'ESG Campaign for a Sustainable Future' to celebrate the occasion in a more meaningful way. As part of environmental clean-up activities, 55 employees representing the 55th anniversary picked up waste around Han River Park in Yeouido for half a day. In celebration of the 55th anniversary after its foundation in Korea in 1967, Siemens Korea plans to continuously conduct activities in daily life to protect the environment from the climate crisis while putting 'sustainability' at the heart of all businesses.

한국지멘스는 지난 10월 창립 55주년을 맞아 본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보다 뜻깊게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을 통해 55주년을 기념하는 55명의 임직원들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반나절 동안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1967년 한국 연락 사무소 설립이래 창립 55주년을 맞은 한국지멘스는 앞으로도 모든 사업의 근간을 '지속 가능성'에 두고 환경 보전을 위한 꾸준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TÜV SÜD Korea

TÜV SÜD Korea began operations in 1992 and was incorporated in 1994 with the headquarters in Seoul and four more locations in Korea. TÜV SÜD Korea has a solid reputation for partnering customers in their business process, helping them achieve domestic and global market acceptance of their products and systems.

TÜV SÜD Korea는 1992년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하여 1994년 한국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서울 및 부산 사무소, 구로 및 수원 시험소, 신안 해상풍력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ÜV SÜD Korea는 독일의 우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 시험 인증 및 경영시스템 인증, 교육 및 세미나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제품 및 시스템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866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98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 수 179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Testing, Inspection, Certification, Audit, and Training



Website 홈페이지 www.tuvsud.com/ko-kr

INSPIRING TRUST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TÜV SÜD was founded on the principle of protecting people, property and the environment from technology-related risks. Today, this founding principle remains valid and embedded in our mission. As we look tomorrow, we have identified two strategic themes that we believe will shape the narrative of commerce and society in the decades to come: digital transform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ÜV SÜD는 기술 관련 위험으로부터 사람,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설립됐습니다. 오늘날에 도 이러한 창립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여 TÜV SÜD의 미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TÜV SÜD는 디지털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트렌드가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형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The 2nd TÜV SÜD Kids Safety Drawing Contest (May 2022) 제 2회 TÜV SÜD 어린이 안전 그림 그리기 대회 (2022년 5월)

TÜV SÜD Korea hosted the 2nd TÜV SÜD Kids Safety Drawing Contest in celebration of Family's month. Anyone between 8 to 13-year-old children could participate the online contest.

Under the theme of "Safe future with green technology," children chose one of three subthemes to draw the paintings - future green building, eco-friendly vehicle, and green energy of one's imagination.

Jung-Wook Seo, Managing Director of TÜV SÜD Korea, said, "I'm pleased to host the children's safety drawing contest in consecutive year and look forward to our children's fun and innovation ideas on how they imagine ecofriendly and sustainable life in the future."

In liaison with the professional artist Bo-Ram Lee, TÜV SÜD Korea carefully selected the winners based on the four criteria: the theme relevancy, creativity, aesthetic impression, and completeness. TÜV SÜD Korea announced 16 winners of first, second, and third places, and all participants were awarded certificates of participation.



TÜV SÜD Korea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 및 동 연령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2회 어린이 안전 그림 그리기 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친환경 기술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라는 주제 아래, 친환경 건물, 친환경 자동차, 내가 상상하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세 가지 소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TÜV SÜD Korea 서정욱 대표이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회 어린이 안전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며, "많은 어린이들이 친환경 기술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를 마음껏 상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상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눠, 각각 대상(1명), 금상(2명), 은상(5명), 총 16명을 선정했습니다. TÜV SÜD Korea는 심사 전문성을 위해 이보람 작가와, '주제 적합성', '독창성', '심미성', '완성도'를 고루 잘 갖춘 작품들을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TÜV SÜD Korea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독창적인 작품을 그린 모든 학생들에게 참가상을 수여했습니다.

Winner's work (수상 그림)

Higher-grade winner (고학년 대상 수상작)



■ Name (이름)

Seung-Hyeon Ryu (류승현)

Grade (한년)

4th grade (4학년)

■ Work title (작품명)

Electric generator using apartment noise between floors (층간소음을 이용한 전기발전기)

■ Work explanation (작품 설명)

Seung-hyeon imagined a generator on each floor of the apartment that absorbs the vibration of the noise between floors by springs and generates electricity. With this generator, children will be able to stomp around and play freely at home and create electricity at any time. He also imagined a safe and healthy future where children can make noise as much as they want and a specially designed fan works by absorbing the noise and converting it into wind.

(총간소음의 진동을 스프링이 흡수해서 진동을 모아 전기로 만드는 발전기가 아파트 총층마다 있어서 아이들이 집에서도 마음껏 뛰어놀고 언제든지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을 흡수해서 바람으로 전환시키는 선풍기가 있어서 마음껏 떠들고 에너지도 얻는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inner's work (수상 그림)

Lower-grade winner (저학년 대상 수상작)



■ Name (이름)

Si-On Kim (김시온)

■ Grade (학년)

3rd grade (3학년)

■ Work title (작품명)

Smoke-absorbing whale bus (매연 먹는 고래 버스)

■ Work explanation (작품 설명)

Blue whales in the sea filter shrimp from seawater with tens of thousands of dense beards. Si-on thought of that whale and drew a picture. It's a bus that absorbs the smoke on the road, filters out the dust with the first filter that looks like a whale's beard, and runs with the electrical energy generated during the second and third filters. It is an eco-friendly energy bus that filters out smoke and emits clean air.

(바다 속 흰긴수염고래는 수만개의 촘촘한 수염으로 바닷물에서 새우를 걸러 먹습니다. 그런 고래를 떠올리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로 위의 매연을 빨아들여 고래의 수염처럼 생긴 첫번째 필터로 먼지를 걸러내고 두번째, 세번째 필터를 거치는 동안 생기는 전기 에너지로 달리는 버스입니다. 매연은 걸러내고 깨끗한 공기를 배출하는 친환경 에너지 버스입니다.)

Donation for IT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October 2022) 하트-하트재단에 발달장애인 ICT 교육지원사업 기부금 전달 (2022년 10월)

TÜV SÜD Korea made a donation to support IT education infrastructure and equipment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through the Heart to Heart foundation.

The donation ceremony took place at Seocho life-learning center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attended by Jung-Wook Seo, Managing Director of TÜV SÜD Korea, and Jin-ah Jang, Director general of Heart to Heart foundation, and other related participants from each party.

The number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is increasing every year, but the number of jobs with simple repetitive use such as packaging, assembling, arranging, and cleaning, where they are most employed, is expected to decrease rapidly. On the other hand, new jobs in IT sector are expected to grow rapidly. By supporting IT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TÜV SÜD Korea will be able to support them to become independent.

"We are pleased to support IT education for minorities through Heart to Heart foundation, following the last year", said Jung-Wook Seo, Managing Director of TÜV SÜD Korea. "This year's CSR activity is even more meaningful to TÜV SÜD, which believes in better sustainable future, since the IT education supports quality IT job opportunities and independenc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TÜV SÜD is continuously going to take its social responsibilities through various CSR activities"

TÜV SÜD Korea는 발달장애인 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ICT교육 지원사업을 위해 하트하트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기부금 전달식은 서정욱 TÜV SÜD Korea 대표이사와 장진아 하트하트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 데 서울 서초구 발달장애인 교육 지원센터에서 치러졌습니다.



발달장애인 인구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가장 많이 취업해 있는 포장, 조립, 정리, 청소 등의 단순 반복 활용의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IT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ICT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발달 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서정욱 대표이사는 "지난해에 이어서 하트하트재단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티유브이슈드코리아가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IT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보다 나은 지속가능한미래를 만들어가는 티유브이슈드코리아로서는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VOLKSWAGEN

GROUP KOREA

Volkswagen Group Korea

Established in 2004, Volkswagen Group Korea (VWGK) has four strong brands – Volkswagen, Audi, Lamborghini, and Bentley. By importing and selling a wide range of models that meet the various lifestyle and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customers, VWGK is contributing to the growth of Korea's imported vehicle market. In 2021, VWGK recorded annual sales of 40,838, representing 14% of the total import market in Korea.

2004년 설립된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산하에 폭스바겐, 아우디,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네 개의 강력한 브랜드를 두고 있으며,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개성에 부합하는 폭넓은 브랜들를 수입, 판매하며 한국 수입차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네 개 브랜드에 걸쳐 연 판매량 총 40,838대를 기록하며 전체 수입차 시장에서 약 1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909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2004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 수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Automotive



Website 홈페이지 https://www.vwgk.co.kr/

VOLKSWAGEN GROUP KOREA'S CSR INITIATIVE

Volkswagen Group Korea's CSR initiative focuses on fostering future talents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Korean society and addressing climate change by engaging in environment programs. Under its CSR Initiative, VWGK endeavors to foster young talents by creat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al, and cultural infrastructure and helping the underprivileged for a healthier community.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사회공헌 이니셔티브는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미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환경문제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 퓨처 모빌리티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환경·문화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소외계층 을 지원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UNSDGs



VWGK fully identifies with the ideology of the UN SDGs and is an active participant. All activities fulfill the UN SDGs, including 'Quality Education (SDG 4),'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SDG 11),' 'Climate Action (SDG 13).' CSR initiative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the categories of education, culture, environment and local community.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념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CSR 이니셔티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양질의 교육 (SDG 4),'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 11),' '기후 조치 (SDG 13)' 등과 맞닿아 있으며, 교육, 문화, 환경, 지역사회에 대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ducation

Volkswagen Group Korea's education initiative provides students with a diverse set of opportunities to help them grow into future leaders. Education program offers an encouraging learning environment to help more students imagine and design their future career paths.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열어갈 미래를 상상하고 더 큰 희망을 꿈꾸는 중입니다.

Education Program Since 2018

This program focuses on providing students education on future mobility and future technology. Our main focus includes fostering talents in the fold of automotive software engineering. This March, VWGK signed an MOU with '42 Wolfburg', a non-profit software engineering school sponsored by Volkswagen Group and Kookmin University for development of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 automotive specialized software and initiated 'Software Engineering Automotive and Mobility Ecosystem(SEA:ME)' program. Currently, first wave of four students are studying in Germany. Moreover in domestic level, we sponsor FIRST LEGO League Challenge division (elementary~high school) to foster young talents.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미래 자동차 및 미래 사회의 기술을 학습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특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3월 독일 본사가 지원하는 비영리 코딩학교 '42 볼프스부르크' 및 국민대학교와 함께 자동차 특화 소프트웨어 개발 산학협력을 위한 3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오토모티브 및 모빌리티 에코시스템(SEA:ME)' 프로그램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4명의 1기 학생들이 독일로 파견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퍼스트 레고 리그 챌린지 부문(초등~고등)을 후원하며 미래 세대를 이끌 인재를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nvironment

Volkswagen Group Korea has launched a series of environmental programs that contribute to making the world more sustainable and climate-resilient. We will continue to work on improv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children, while also further contributing to the conservation of our ecosystem.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REMEMBER ME Project Since 2022

"Remember Me" project is part of VWGK's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projects for the environment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contributing to a sustainable future since 2018. It aims to support endangered plants' large-scale proliferation and preservation, in line with Volkswagen Group headquarters' projects to conserve global nature as to participate in the UN's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greement since 2007. We donate to schools plants that are designated as a nationally protected species and provide environmental education classes for students to learn and experience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biodiversity protection activities.



'리멤버 미(#날 기억해줘)' 프로젝트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지난 2018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진행해 온 환경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멸종위기 식물의 대량 증식을 지원하고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본사인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유엔의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에 동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진행한 다양한 자연 보호 사업과 맥을 같이 합니다.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된 식물을 기증하는 데에 더해 학생들이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보존 활동의 중요성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2 Reforestation Since 2020

The goal of our forest restoration and tree-planting project was to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34 million tons of CO2 emissions by planting 3 billion trees in Korea and across the planet by 2050. Planting trees brings multiple benefits to society, preventing various illnesses caused by air pollutants. We contributed to the restoration of forest functions and the conservation of forest ecosystems by improving forest landscapes, preventing landslides, securing biodiversity, healing forests, and mitigating heat islands.

산림복원 및 녹화사업은 2050년까지 국내외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탄소중립에 3,400만톤을 기여하고자 실행되었습니다. 식재를 통해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산림경관 개선과 산사태 예방, 생물다양성 확보, 산림 치유, 열섬 완화 등과 같은 산림 기능 회복 및 산림 생태계 보전에 일조한 바 있습니다.

Local Community

VWGK supports marginalized groups and empowers local communities through various programs. We will continue to lead the way in reaching out to local communities that need help and offering a helping hand.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나눔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을 앞장서서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Secret Santa & Warm Winter Kit Since 2018

Secret Santa is a community support program that aims to share the comfort and joy of the holiday season with children in need of social care since 2018. Every year, VWGK employees become a Secret Santa and deliver Christmas gifts to children. Children also receive gift cards purchased with funds voluntarily raised by employees and the company's match funding.

The Warm Winter Kit is an activity that helps underprivileged neighbors to spend the winter warm and healthy in limited situations such as COVID-19. For the elders in difficult situation, boxes of winter kits consisting of blankets, neck warmers, winter hats, sleeping socks, hot packs, and KF94 masks were delivered to elderly in need.

시크릿 산타는 많은 아이들과 따뜻한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2018년 시작된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성탄절 나눔활동입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임직원들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시크릿 산타가 되어 성탄 선물을 전달합니다. 더불어 매칭 펀드를 통해 나눔을 위한 따뜻한 기부금을 만들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겨울 방한 키트는 코로나19와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소외된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나눔 활동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홀로 겨울나기를 해야 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담요와 넥워머, 방한모자, 수면양말, 핫팩, KF94 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겨울 방한 키트를 전달 했습니다.

armacell®

Armacell Korea

As the inventors of flexible foam for equipment insulation and a leading provider of engineered foams, Armacell develops innovative and safe thermal, acoustic and mechanical solutions that create sustainable value for its customers. Armacell's products significantly contribute to global energy efficiency making a difference around the world every day. With more than 3,200 employees and 27 production plants in 19 countries, the company operates two main businesses, Advanced Insulation and Engineered Foams. Armacell focuses on insulation materials for technical equipment, high-performance foams for high-tech and lightweight applications and next-generation aerogel blanket technology.

설비용 고무발포단열재 발명기업이자 엔지니어드 폼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Armacell은 고객에게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이고 안전한 단열 및 소음저감 설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rmacell 제품은 글로벌 에너지 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매일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세계 19개국 27개 공장에 임직원 3,200여명과 함께 고품질 단열재와 엔지니어드 폼의 두 주요 사업 부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rmacell은 기술 장비용 단열재와 최첨단 경량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고성능 폼 및 차세대 에어로젤 블랭킷 기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설립연도 1860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2012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 수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Manufacturer and provider of rubber and flexible aerogel insulation



홈페이지 www.armacell.com / www.armacell.co.ki

THE (BRAND) PHILOSOPHY BEHIND CSR

Everything we do at Armacell has the primary goal to make a difference around the world. Through our corporate sustainability strategy, we strive to build strong bridges between our employees and local communities, forging fruitful partnerships with key stakeholders in every location where we have a presence. By donating time and energy, Armacell's global workforce supports several associations that preserve the environment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ose in need.

우리가 Armacell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전세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일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전략을 통하여 직원과 지역 커뮤니티 사이에 강력한 다리를 건설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주요 이해 관계자와 유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기부함으로써 Armacell의 글로벌 인력은 환경을 보존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여러 협회를 지원합니다.

■ Highlight of CSR Activities

At Armacell, we live out ou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engagement and volunteering in local communities, and especially those where our manufacturing facilities are located. In all our activities to foster communities, we have been motivated by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0: Reduced Inequalities.

Armacell Korea proudly supports DureBox, a manufacturer of corrugated packaging products that works Nuri Rehabilitation Centre to provide jobs and rehabilitation support to people with special needs. DureBox carton packaging is used for ArmaFlex® products from the Cheonan plant. The newly launched ArmaGel® product range is also being shipped in DureBox packaging a total of one million boxes over the past five years.

DureBox is a South Korean Packaging manufacturer working with Nuri Rehabilitation support to people with special needs. DureBox's comprehensive program covers both life skills and social adaptation training as well as vocational rehabilitation support, e.g., vocational adaptation, on-the-job learn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Through this, their employees are helped in achieving economic independence and becoming more socially integrated. With Armacell;s support, DureBox is helping to reduce the inequality its employees might otherwise suffer.

Armacell은 우리 지역 사회, 특히 제조 시설이 위치한 지역 사회에 대한 참여와 자원 봉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은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0(불평등 감소)을 동기로 삼아 이루어졌습니다.

Armacell Korea는 누리재활센터와 함께 장애인의 일자리와 재활 지원을 제공하는 골판지 포장재 제조업체인 DureBox에 대한 지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DureBox 제품은 천안 공장의 ArmaFlex® 과 ArmaGel® 제품군의 제품 포장 박스로 사용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00만 개의 Armacell의 제품들이 DureBox 포장 박스로 배송되었습니다.

DureBox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누리 재활 지원과 함께 일하는 한국 포장 제조업체입니다. DureBox 의 포괄적인 프로그램은 생활 기술 및 사회적 적응 훈련뿐만 아니라 직업 적응, 현장 학습 및 문제 해결 기술과 같은 직업 재활 지원을 모두 다룹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Armacell의 지원으로 DureBox는 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BMW GROUP Korea

BMW Group Korea

Established in 1995 as the first import car company, BMW Group Korea is a wholly-owned subsidiary of BMW Group. BMW Group Korea is responsible for the distribution of BMW luxury performance automobiles, Sports Activity Vehicles, Motorcycles, and MINI. A total network of 74 showrooms, 76 service centers and 7 dealers represents the BMW Group across the country.

BMW 그룹 코리아(대표 한상윤)는 BMW 그룹이 100% 출자한 한국 법인으로 1995년 수입차 업체 최초로 출범했습니다. 국내에서는 BMW와 MINI, BMW 모토라드의 수입 및 부품 공급 등을 중심으로 국내 딜러와 영업망 개발 및 기술 교육을 진행하며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MW 그룹 코리아(MINI포함)는 현재 전국적으로 7개의공식딜러사 하에 전시장 74개, 서비스센터 76개로 수입차 최대규모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916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95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 수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Wholesale, Retail, Service, Offer, Automobile



Website 홈페이지 www.bmw.co.kr

BMW KOREA ACTIVITIES IN KOREA

As a commitment to the society, BMW Group Korea established BMW Korea Future Fund, the first nonprofit foundation by import car company in 2011, and BMW Driving Centre, the world's first automotive multicultural complex within the BMW Group in 2014. Not only limited in vehicle sales and services, BMW Group Korea continues to carry out variou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manpower training programs, and research vehicle donations for automobile related colleges/universities departments and high schools.

BMW 그룹 코리아는 2011년 수입차 최초의 비영리 사회공헌 재단인 BMW 코리아 미래재단, 2014년 세계 최초로 자동차 복합문화 공간인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를 설립하는등 국내 사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BMW 그룹 코리아는 차량판매 및 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기술인력양성 프로그램, 자동차관련 대학학과와 고등학교에 연구용 자동차기증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BMW Korea donated coolers for the National Fire Agency as CSR activity BMW 사회공헌 사업 기탁물품 전달식

BMW CSR Business Deposited Foods Delivery Ceremony

As par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BMW Group Korea held a 'Delivery Ceremony for Ice Coolers for Fire Suppression and Emergency Dispatch Sites' with the Korea National Fire Agency (KNFA) on July 12th.

BMW supported 1,150 units of them worth 350 million won, which can be used to store medicines and beverages needed for emergency dispatch to the fire site. The ceremony was held at the Sejong City Fire Department, attended by Lee Heung-kyo,



head of the National Fire Agency, and Han Sang-yoon, CEO of BMW Group Korea. The delivery of the items i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firefighters and support fire and emergency dispatch sites.

The coolers delivered to the National Fire Agency will be installed in fire trucks, ambulances, and command trucks as it can store bottled water and beverages consumed by firefighters, as well as medicines that require cold and hot air.

Meanwhile, BMW Group Korea has been carrying out various activities for fire site support and fire safety nationwide. In 2016, celebrating BMW's 100th anniversary, BMW Group Korea donated seven X5s to the Seoul Metropolitan Fire & Disaster Headquarters. In the same year, the Firemen's Automobile Safety Rescue Seminar was held to provide firefighters with information and safety rescue tips on BMW cars using high-tech materials and the latest technology to help them conduct safe and rapid rescue activities at the site in case of a car accident.

BMW 그룹 코리아(대표 한상윤)는 지난 07월 12일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소방청과 '전국 화재진압 및 긴급출동 현장 지원을 위한 차량용 냉온장고 전달식'을 갖고, 화재 현장 긴급 출동 시 필요한 의약품과 음료 보관 등에사용 가능한 3억 5천만원 상당의 차량용 냉온장고를 1,150대를 지원했다. 전달식은 세종시 소방청에서 이흥교 소방청장과 BMW 그룹코리아 한상윤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물품 전달은 소방관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화재 및 긴급출동 현장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에 전달된 차량용 냉온장고는 소방관이 음용하는 생수 및 음료뿐만 아니라 냉·온장이 필요한 의약품도 보관할 수 있어 소방차,구급차, 지휘차 등에 장착되어 현장 구조·구급 활동에 적극 활용될 방침이다.



한편, BMW 그룹 코리아는 전국 화재 현장 지원 및소방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BMW 그룹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수입차 업체 최초로 소방 지휘 순찰용 BMW X5 차량 7대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기증했다. 또한 같은 해 '소방대원 자동차안전구조 세미나'를 열고, 소방대원들에게 첨단소재와최신 기술을 적용한 BMW 자동차에 대한 정보 및 안전구조 요령을 제공해 차량 사고 시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Porsche Korea

Porsche Korea Ltd. (CEO, Holger Gerrmann), the 17th subsidiary of parent company Dr. Ing h.c. F. Porsche AG, which marks its 74th anniversary this year, has been introducing various products including the 911, the world's bestselling sports cars to the Korean market. With five authorized dealer partners, Porsche is running 13 Porsche Centres, 13 Porsche Service Centres, 3 Porsche Approved Centres, 3 Porsche Studios and a pop-up store, 'Porsche NOW Seongsu' in Korea.

포르쉐코리아(대표 홀가 게어만)는 올해 브랜드 탄생 74주년을 맞은 포르쉐 AG의 17번째 자회사로, 스포츠카의 대명사 911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국내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개 공식 딜러사와 함께 전국에 13개 포르쉐 전시장과, 13개 서비스센터, 3개의 포르쉐 인증 중고차 센터, 3개의 포르쉐 스튜디오와 포르쉐 팝업 스토어 '포르쉐 나우 성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948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2014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 수 82 *as of October 2022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An official importer and distributor of Porsche in Korea



Website 홈페이지 https://www.porsche.com/korea/ko/

THE (BRAND) PHILOSOPHY BEHIND CSR

With Porsche's brand identity "Dream" as the concept, the "Porsche Do Dream" campaign was designed to provide practical help to beneficiaries, encompassing socially vulnerable people who need assistance. In addition, Porsche Korea, which is a brand receiving great love in the Korean market, added the meaning of "knocking on the door" to take one step closer to Korean society. Porsche Korea will gradually expand its authentic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which correspond to the core values of Porsche, including 'Humanitarian', 'Talent', 'Education',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포르쉐 두드림(Do Dream)' 캠페인은 포르쉐의 브랜드 정체성인 '꿈'을 콘셉트로, 따뜻한 손길이 아쉬운 사회 취약계층과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시장에서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포르쉐코리아가 한국 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인도주의', '재능', '교육', '환경', '지속가능성' 등 포르쉐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Highlight of CSR Activities 2021/2022

Since the launch of the "Porsche Do Dream" campaign, which reflects the values of "Dream" and "Passion" in 2017, Porsche Korea has been presenting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corresponding to Porsche's brand philosophy in various fields such as culture, art, education, and environment. Porsche Korea has continued to support education and environmental fields for children to form and realize their "dreams" through variou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n 2021, Porsche Korea expanded the "Do Dream" campaign into the arts and culture, and in recognition of its contribution to creating a sustainable cultural and artistic environment, was awarded the "2021 Arts Supporter Grand Prize."





This year, the campaign is expanded into nine programs, including four newly introduced programs including the "Porsche Dream Smart Eye" for children's traffic safety issues, "Bee'lieve in Dreams" project to create urban beekeeping and green areas, "Porsche Future Heritage" to support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Korean cultural heritage, and "Porsche Dreamers. On. City Hackers," a media art project to support up-and-coming Korean artists. Porsche Korea has donated a total of 4.3 billion KRW through the "Do Dream" campaign and is continuing to introduce a wider range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reaching from culture, art, education, the environment, and sports.

포르쉐코리아는 지난 2017년 '꿈'과 '열정'의 가치를 반영한 '포르쉐 두 드림' 캠페인 론칭 이후 문화, 예술,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르쉐의 브랜드 철학과 상응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며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교육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2021년에는 '두 드림' 캠페인의 지원 범위를 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 예술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올해의 예술후원인대상'을 수상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올해는 지원 분야 확대와 신규 도입을 통해 총 9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아동들의 교통 안전을 위한 '포르쉐 드 림 스마트 아이'와 도시 양봉 및 녹지 확대 조성을 위한 '빌리브 인 드림' 프로젝트를 새롭게 선보였고,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활동을 지원하는 '포르쉐 퓨처 헤리티지', 국내 신진 아티스트들을 지원하는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 '포르쉐 드리머스 온 시티 해커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포르쉐코리아는 '두 드림' 캠페인을 통해 총 43억원의 기부금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문화, 예술, 교육, 환경, 스포츠 등 더욱 확장된 범위의 사회 공헌 활동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KGCCI MEMBERSHIP CATEGORIES 2023

| Fee | Corporate (annual) | | | Associate/Individual (annual) | |
|-----------------------|-----------------------|-----------|---------------------|-------------------------------|--|
| In Korea | ₩ | 840,000 | Staff up to 50 | ₩ 263,000 | |
| | ₩ | 1,575,000 | Staff up to 51-299 | | |
| | ₩ | 2,200,000 | Staff up to 300-499 | | |
| | ₩ | 2,520,000 | Staff over 500 | | |
| In Germany /Abroad | € 700 | | | € 200 | |

For inquires, please contact Brian Youngwook Koh, Senior Membership Manager ywkoh@kgcci.com@kgcci.com | 02-3780-4630

KGCCI PREMIUM PARTNER PROGRAM 2023



KRW 12,500,000 (+VAT) VALUE of 19,028,000 PREMIUM PARTNER PLUS

KRW 7,000,000 (+VAT)

VALUE of 12,951,000



KRW 5,000,000 (+VAT)

VALUE of 9,094,000

- Logo exposure on email signature of all KGCCI correspondence, all major events, invitations and on background of virtual meetings/webinars
- Advertisement exposure on KGCCI website, KORUM Magazines, weekly newsletters and Email signatures
- Sponsor of one of KGCCI Networking Dinner Events & one of KGCCI Networking Gatherings

Logo size and amount of advertisement exposure and size of sponsorship package depends on PremiumPartnerPackage category.

Every PremiumPartnerPackage can be customized to your needs!





KGCCI & KGCCI DEinternational

KGCCI has been serving as the official representative of German Business in Korea since its foundation in 1981. It is the second-largest foreig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with a growing network of around 500 members. As the first point of contact for German and Korean companies exploring business opportunities in each country, KGCCI and its subsidiary KGCCI DEinternational serve as a communication platform and offer professional services to support market entry and expansion. The services include, among others, market research, business partner matching, trade fair business, delegation trips, and investment promotion.

한독상공회의소(이하 '한독상의')는 1981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 경제교류 활성화 업무를 수행해 왔다.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회원사는 500여 곳에 달한다. 독일 경제 및 산업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는 한독상의는 한국과 독일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양국 기업의 중요 소통 창구이자 시장 진입 및 사업 확장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한독상의는 자회사 한독상공회의소디이인터네셔널과 더불어 시장 조사와 사업 파트너 발굴, 박람회 참가 지원, 투자 유치, 산업시찰 프로그램 등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며 한-독 에너지파트너십 등의 정부 주도 양자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894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81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 수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Business association



Website 홈페이지 www.kgcci.com

GERMA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German companies have a longstanding tradition with CSR, long before this term was even coined. The idea of the "honorable merchant" has been one of the leading principles of German companies and the German Chamber organization for centuries. It emphasizes that merchants shall create value to their communities and act according to an honorable set of codes, wherever they do business. While being active in Korea, these ideals are also emphasized and practiced by German companies and their Korea subsidiaries. The CSR activities of German companies are numerous and diverse in their forms. From healthcare support and environment protection to the support of underprivileged childr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many more, German companies have shown that they are active and engaged in their local Korean communities.

독일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라는 용어가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이와 관련하여 오래된 관례를 가지고 있다. '존경받는 상인'이라는 개념은 지난 몇 세기 동안 독일 기업과 상공회의소들의 주요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개념에 따라 상인은 지역사회에 가치를 창출해야 하며 명예로운 상인의 원칙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독일기업들과 그들의 한국 내 자회사들에 의해 여전히 중요시되고 행해지고 있다. 독일기업의 CSR 활동은 그 형태가 수없이 많고 다양하다. 의료 지원, 환경 보호부터 사회 취약계층 지원까지 독일기업들은 한국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KGCCI supports governmental initiatives such as the Korean-German Energy Partnership and contributes to Korean society through its various initiatives such as Ausbildung (Dual Vocational Training), WIR (Women in Korea) Mentorship, etc. KGCCI belongs to the global German Chamber Network Abroad (AHK) with 150 German Chamber offices in 92 countries and about 50,000 members worldwide. Its umbrella organization is the Association of German Chambers of Industry and Commerce (DIHK) with offices in Berlin ad Brussels, serving the 79 Chambers in Germany (IHK) and their 3.6 Mio. German member companies.

한독상공회의소는 독일식 일·학습 병행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아우스빌등(Ausbildung), 여성 리더십 증진을 위한 위어(WIR, Women in Korea) 멘토십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한독상공회의소는 전 세계 92개국 150개소에 달하는 외국 주재 독일상공회의소(AHK) 네트워크에 속해있다. 상부 단체인 독일 상공회의소(DIHK)는 독일 내 79개 지역상공회의소를 두고 회원사 약 360만곳을 보유하고 있다.

■ Women in Korea (WIR) Mentorship Program Since 2018

On the occasion of International Women's Day (March 8), KGCCI (AHK Korea)'s female leadership group 'Women In Korea (WIR)' celebrated International Women's Day under this year's theme #BreakTheBias.

The event was co-organized by KGCCI and the German Embassy Seoul at the residence of German Ambassador to Korea Michael Reiffenstuel.

At the event, eight WIR group female executive mentors and mentees from KYOBO Life Insurance, Deutsche Bank, Yulchon LLC, Bayer Korea, Gartner Korea, Henkel Korea, Siemens Korea, and TK Elevator Korea received plaques of appreciation in recognition of their continued efforts on women's empowerment and gender equality in the workforce.

"International Women's Day is about our dreams for a better future for the next generations of women and men. Gender equality is all up to us to Break the Bias," Peter Winkler, Chargé d'Affaires of the German Embassy in Seoul, said. He added, "We are standing in solidarity with women in the world, and we are especially commending the incredibly brave women of Ukraine who have shown unimaginable strength and courage even in the worst circumstances."

Susanne Woehrle, VP of KGCCI, emphasized, "Our goal is to empower the new generation of women so that they can play a substantial and leading role in the world. We will make every effort to continue this impactful program for many years to come with even more spirit and ideas."

On April 20, KGCCI, in cooperation with MCM, a luxury lifestyle goods and fashion house that has German heritage, invited KGCCI WIR (Women In Korea) group mentors and mentees to a tour of the MCM HAUS and a lecture on "Career development as a female leader."

During the tour of the MCM HAUS, WIR group mentors and mentees had a look at MCM's collection and learned about the brand's history.

Kim Young Mi, the current MCM advisor/co-head

of Sungjoo Foundation, gave a lecture on career development for female leaders to share insight into women's empowerment with the mentors and mentees.

Imagine a gender equal world. A world free of bias, stereotypes, and discrimination. A world that is diverse, equitable, and inclusive. A world where difference is valued and celebrated. Together we can forge women's equality. Collectively we can all #BreakTheBias.

| A world where difference is valued and celebrated. Together we can forge women's equality. Collectively we can all #BreakTheBias.

| A world where difference is valued and celebrated. Together we can forge women's equality. Collectively we can all #BreakTheBias.

| A world where difference is valued and celebrated. Together we can forge women's equality. Collectively we can all #BreakTheBias.

| A world where difference is valued and celebrated. Together we can forge women's equality. Collectively we can all #BreakTheBias.

한독상공회의소의 여성 리더십 증진을 위한 그룹 'WIR (Women In Korea)'가 '편견을 깨라'를 주제로 하는 올해의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했다. 주한독일대사관저에서 열린이번 행사는 한독상공회의소와 주한독일대사관이 공동 주관했다.

이번 행사에서 교보생명, 도이치은행, 법무법인 율촌, 바이엘 코리아, 가트너코리아,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 지멘스, 헨켈코리아 소속 WIR 그룹 여성 임원 멘토와 멘티 8 명이 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 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한독일대사관의 페터 빙클러 대사대리는 "세계 여성의 날은 다음 세대의 여성과 남성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꿈을 이야기하는 날로, 양성평등은 편견을 부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세계의 여성들과 연대하고 있으며, 특히 극도로 힘겨운 상황에서도 놀라운 힘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여성들에게 찬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한독상공회의소 수잔네 뷔얼레 부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세대의 여성들이

세계에서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디어로 선한 영향력을 위한 WIR 멘토십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강조했다.

지난 4월 20일 한독상공회의소는 독일 헤리티지를 가진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MCM과 함께 여성 리더십 증진을 위해 출범된 한독상공회의소 위어 그룹 소속 멘토와 멘티들을 MCM 하우스로 초청했다.

위어 멘토와 멘티들은 MCM의 컬렉션을 살펴 보고 브랜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현 MCM 고문 겸 성주재단 공동 대표인 김영미 감사가 '여성 리더 로서의 경력 개발'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여성 역량 강화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 UNICEF-Ministry of Foreign Affair's #ENDviolence campaign

In September 2022, Dr. Martin Henkelmann, President & CEO of KGCCI, took part in the "#ENDviolence campaign." The challenge was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raise public awareness on child protection and put it as a top priority on the road. Participants of the challenge took a photo with the official slogan "End Violence" and uploaded it to social media. Dr. Martin Henkelmann was appointed to participate in by German Ambassador to Korea, Michael Reiffenstuel. He then nominated Holger Gerrmann, CEO of Porsche Korea, and Hyun-Nam Park, Branch Manager of Deutsche Bank Seoul.

한독상공회의소 마틴 행켈만 대표가 지난 9월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본 챌린지는 아동 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아동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외교부에서 추진했다. 캠페인 로고가 그려진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켈만 대표는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가자로 홀가 게어만 포르쉐 코리아 사장과 박현남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대표를 지목했다.







YOUR TRUSTED HR PARTNER **INKOREA**

Recruiting



Personal Recruitment Service, Candidate Search Service

Job Market

Posting of Job vacancies, Applicants Search



HR Networking



HR Circle. HR Conferences

Job Fairs



Campus Recruiting of German companies, German Joint Recruiting event

HR Seminars

Soft-skill and intercultural Workshops, Language Courses



HR Survey



Salary and Compensation report





Begin your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with KGCCI!

Berufsbildung (Vocational Training)
Train the Trainer (AdA International)
Your Future Employment in the Right Way.

Ever wondering how a company can develop its key competencies and keep sustainable employment at the same time?

- Implement **Germany's Berufsbildung system**, a successful VET model that enables smooth education-to-work transitions of your employees.
- Get to know Train-the-Trainer (TtT), an actionoriented pedagogical approach towards developing a holistic occupational competence.
- Please contact Ausbildung Team at KGCCI for further information.

Tel.: +82-2-3780-4695

E-mail: yjkim@kgcci.com











KGCCI CSR Report Eighth Edition, November 2022

©KGCCI DEinternational Ltd. 2022

8th Fl., Shinwon Plaza, 85, Dokseodang-ro, Yongsan-gu, Seoul 04419 T +82 2 37804 600 F +82 2 37804 637 www.kgcci.com

A portion of the proceeds from this brochure will be donated to a charity project in Korea.

